

2027 월가 모의고사 샘플 문항 해설

-데카르트의 본유적 관념론-

1번 문항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답: ⑤

<셋째 성찰>에서 관념은 본유적 관념, 외래적 관념, 조작적 관념으로 분류된다. 어떤 관념이 외래적 관념도 아니고 조작적 관념도 아니라면, 그것은 본유적 관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정신은 본유적으로 물체 관념을 가지며, 이로 인해 물체 인식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주체가 물체를 인식하는 것과 물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이다. 해당 선지는 범주를 오도해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생각 중 일관성을 보인 부분은 정신 내 관념 중에서도 물체 관념에 한정된다. 관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상정했다는 점에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여담으로 데카르트의 생애 전반과 그의 저술 시기는 엄밀히 말하여 범주가 다르지만 여기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이 양화사 판단만으로 선지가 충분히 털린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본유성 주장은 상식과 충돌한다. 해당 선지의 내용은 전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해당 선지의 내용은 상식과 충돌한다.

④: 단순 본성은 <정신지도규칙>에 등장하지만 원초적 개념은 그의 저술에서 등장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번 문항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답: ②

3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저술 중 <셋째 성찰>은 그 내용에 의해 그의 철학에서 논란을 야기한다. 해당 저술의 내용에 따르면, 관념이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지문의 다른 부분의 저술이 그러하듯이 데카르트는 다른 저술에서 정신 내 모든 관념이 본유적이라 여긴다. 방금 우리는 지문으로부터 <셋째 성찰>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를 추론해냈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정신은 물체에 비해 더 명증하게 지각된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더 이상의 후술 없이 쟁점은 관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따라서 주장은 있으나 근거는 지문 내에서 찾을 수 없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단순 본성이나 원초적 개념은 물체 관념의 본유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데카르트는 연장이나 운동 관념은 원초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선지는 애초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④: 2문단에 제시되는 ‘일관성’이란 그의 특정 주장이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이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이원론은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기능한다. 그러한 주장(이원론)에 대한 근거는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3번 문항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코멘트: ㉠은 “데카르트가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레기우스의 주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데카르트가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어야 한다. 둘째, 제시되는 주장이 레기우스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것이 아니지만 애초에 레기우스의 것이 아니라면 ㉠이 아니다. 요컨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이 될 수 없다.

정답: ③

4문단에 따르면, 레기우스는 먼저 사유 능력만으로 정신 활동이 수행된다고 본다. 이어지는 후술에서는 데카르트와 레기우스의 공통점이 소개된다. “정신은 본성상 사유하는 것”이 그것이다. 두 정보를 종합하면, 레기우스는 정신 활동을 사유 능력으로 규정한다. 이 시점에서 관념은 이 둘과 작별을 고한다. 그것은 단지 외부의 사물로부터 기원했을 뿐이다.

①: ⑤을 이해했다면, 수월하게 판단된다. 해당 선지는 정신은 본성상 사유하는 것, 즉 그러한 것은 본유적인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데카르트가 수용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아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레기우스와 데카르트는 모두 관념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해당 선지는 레기우스의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아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레기우스는 정신 안의 모든 관념이 외래적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본다. 해당 선지는 레기우스의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아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레기우스와 데카르트는 모두 정신이 본성상

사유 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해당 선지는 레기우스의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가 아니다.